



부는 자신들이 진 거대한 규모의 부채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이탈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부문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절벽이다. 재정절벽이란, 어느 순간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재정 지출이 줄어들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현상이다. 이탈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부문 지출을 통해 경제를 부양한다면, 결국 이탈리아는 지출을 줄이면 발생할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공공부문에 막대한 세수를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모델이며, 이탈리아의 부채를 끊임없이 늘릴 뿐인 정책이다.

이탈리아 경제가 다시금 경제불황의 문제에 다가선 지금, 이탈리아 정부가 경제 부양정책을 펼치고 싶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병행통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고육지책일 뿐이다. 이탈리아가 채권 스프레드를 더욱 늘리는 병행통화 정책을 추구할수록,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와 은행권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뿐이다.

번역자: 이재기

출처: <http://www.independent.org/news/article.asp?id=8977>